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163 20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대순진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

김 순 자

(대진대학교)

《요약》

교양교육과정은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가?”에 대한 기본적 딜레마에 대한 진보적 해답이다.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무수한 정의는 이 딜레마에 참여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20세기를 통해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교양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받은 사람 즉, 상식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달되었다. 이 기본적 목적은 모든 학생을 위해 학습경험을 나누어주는 교육자들의 신념이다. 보통의 문화유산을 해석하고, 경험을 나누며 교양교육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위해 특성을 제공했다. 교양교육과정의 이슈는 교양교육의 각기 다른 개념 때문에 교양교육과정 프로그램 선정의 다양한 문제가 따르고 있다. 교양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분과교과 안에서의 교양 프로그램, 2. 중핵교육과정의 교양 프로그램, 3.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양 프로그램, 4. 의미영역과 탐구유형에 따른 교양교육프로그램이다.

대진대학교는 대순진리회의 종립대학으로 대순사상을 교양필수로 가르치고 있다. 전통적인 대순진리사상의 종교성은 궁극적인 가치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속적 차원의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 범종교적인 종교성으로 인격교육과정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Maslow의 자아실현인의 특징과 같다. 즉, 일체의 이분법적 갈등이나 분열이 사라지고 초인간적인 무욕의 초월한 모습이 나타나며 확고한 자기 주체성의 자주성을 지니고 사랑과 수용의 자세를 가지며 상생, 조화, 아름다움, 선, 행복 등의 충실함이 나타난다.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격의 도야이며 배운 사람의 특징이라 하겠다. 교육받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교양교육과정, 자아실현인, 대순진리사상, 교육받은 사람, 대순사상의 이해

《Abstract》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nd Daesoonjinri thought

Kim, soon-ja

(Daej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s programmatic resolution to the basic dilemma: "What knowledge is of most worth?" Countless definitions of General Education have emerged throughout the 20th C, as different educators attend to this dilemma, so emerge the diverse conception. Issues in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e process of resolving them is what gives character to programs and provides the different conceptions of General Education.

Types of General Education Program;

1. General Education within Seperate Subjects
2. General Education as Core Curriculum
3. General Education as Learning Traits
4. General Education as Realms of Meaning and Modes of Inquiry

In Daesoonjinri taoist are derieved from the values of traditional folk religions of Korea.

When the natures of religions is ultimate value oriented, it is necessary to bring the above elements into personality education based on dimension of religion. Maslow suggested the concept of Self-Actualizing people. Then people experience more spontaneous Self-Identification and become more loving, accepting and egoless. And people become less motivated by the lows of the physical world and they take the chance of definitive transformation in their life.

Finally people get a sense of dedication, such as integration, peace, beauty, good and happiness.

These are the characteristic or the nature of the ultimate character oriented by Daesoonjinri religion. Educated people are inquiring of meaning of life.

Key words: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Self-Actualizing people, Daesoonjinri thought,
Educated people, Understanding of Daesoonjinri thought.

I. 서론

대학은 급격히 변화하는 21c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폭넓은 사고력과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교양인을 배출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학부졸업생을 전문인으로 칭하지 않으며 또 대부분의 졸업자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최근 대학들은 세분화된 전공교육에서 벗어나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학부제의 시행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주도하의 학부제는 과거의 실험대학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교수와 학생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시켜주기 위하여 최저 전공인정 학점제의 도입, 부전공제도, 다전공제도, 연계전공, 학습자 주도전공, 무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전공학점의 최소화 및 선택교과의 확대가 시행되었다. 또한, 교양교육에서도 대부분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 동안 전공교육은 대학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창출, 전승, 활용으로 대변되는 대학의 기능적 특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능수행을 위한 대학인들의 지적인 삶의 집합체라고 할만큼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전공의 의미는 한마디로 전문화 과정이다. 전공을 통해서 학생들은 제각기 한 전문분야에 깊이 있는 지적 사고체계를 수립하고 그 분야의 표상체제를 이해하며 독특한 전문기능과 태도를 익히고 규범과 인습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곧 전공은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전공분야에 사회화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응집시켜 설계하여 놓은 것이다. 또한 전공은 필연적으로 지식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그 깊이와 폭의 심화는 물론 양과 질의 확산되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전공은 인간의 과학적 탐구에 의하여 발견되고 생성되는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고 유지하며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하는 도구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계속 분화되고 심화되어 그 학문의 폭이 좁아지고 학문간에 단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폭 넓은 사고와 창의력 및 적응력을 요하는 미래

의 인간상을 기르는데 한계성이 있게된다. 따라서 미래에 적응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 도전 할 수 있는 균형잡인 교양인을 기르기 위하여, 전공학문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을 접함으로써 인격의 통합,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시행되는 교양교육의 목표는 여러 가지로 논의 될 수 있으나 첫째, 바람직한 인간성을 배양하여 자아실현인을 기르며 둘째, 학문 할 수 있는 준비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중 인간성에 강조점을 둘 때, 교육의 내용보다는 교육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나타나는 교육대상의 인격적 성숙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두 번째 학문성에 강조점을 두면, 전문교육을 받거나 앞으로 학문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능력 및 기술의 습득을 중요시 하게된다.

학문 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능력 및 기술의 습득이란 교양 교육이라기보다는 준비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진 교양교육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인격성 배양의 목표보다는 오히려 전공교육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바른 도덕성을 가지며 자신의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삶의 다양한 경험을 지성과 사랑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인류가 보편적 가치로 합의하고 있는 자유·평등·민주주의·인권과 인간존엄·평화·삶의 질 향상·문화적 개방성과 관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춘 인간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아실현인의 상이라 하겠으며, 교육받은 인간이 지녀야 할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참 종교인이라면 역시 이와 비슷한 인성적 특징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양인과 종교인의 인성적 특징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며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를 넓혀 줄 수 있는 교양교육이 요청된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종교가 자신의 실존적 고민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개인의 '궁극적 선택'이 갖는 진지성, 결단성, 고유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철저한 사람만이 다른 종교와의 진정한 대화와 협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종교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해의 태도를 길러야 하므로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 종교교육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학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대학교육개혁의 흐름에서 인문학 및 기초학문이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것이다. 인문학만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은 오늘날과 같이 기능주의적 사고와 경영학 정신이 팽배한 풍토에서 크게 표출되고 있다.

한편, 인문학이 지향하는 진리탐구도 때론 이러한 존재론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가령, 객관적 존재를 자인하는 모든 사실은 지적 구축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실과 허구사이의 경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유행 속에서는 사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역사학도 존재론적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찍이 독사(doxa)의 반대개념으로 쓰이던 에피스테메(episteme)가 한 영향력 있는 현대사상가의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될 때 우리는 필연적이고 영속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가능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어떤 주어진 문화, 주어진 시점에서 오직 하나의 에피스테메(episteme)만이 존재하면서 모든 지식---이론 속에 표현된 지식이든 실천 속에 소리 없이 투사된 지식이든---의 가능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 진리에 대한 회의론적 관점은 인문학 일반에 대한 회의를 더 증가시킨다. 본고에서는 인문학의 특징이나 미래에 대해 상론하고 싶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서 인문학은 도덕적 목적을 위해서 문학, 역사, 예술을 연구하는 인문주의와 혈연적 근친성을 가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일련의 도덕적 가치가 위대한 문학정전 속에 내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전통과 친숙해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도덕적 교육의 효과적 방편이 된다는 것은 인문주의 옹호의 정석적 발언이다.

근자에 도덕교육의 방편으로서 인문학의 가치는 의심받고 있다. 그렇지만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감정 이입과 초월, 정신의 유연성과 개방성 등은 열린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민적 자질이 된다. 인문학의 해석의 방법들은 다원적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을 계발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형성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지배계급을 위한 교과과정이었다는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인문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획이다.

덕성과 지혜는 전수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암묵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덕성을 갖춘 인품은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와 지능이 있는 누구에

게나 열려있다. (이점 진리전수가 불가능하며 각자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禪불교의 관점과는 대조적이다.)

예술과 역사는 인간본성 탐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문학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서나 타인에게서나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최종형태까지도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철학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의 효과의 하나는 정치적 수사나 맞지 않은 논의, 속임수, 헛갈리게 하는 말, 말 안개, 감정적 공갈,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발뺌과 은폐를 간파하는 능력을 갖는 비판적 능력을 세련시킬 수 있게 된다.

인문학은 알렉산더 포프가 지적한대로 〈인간의 적정한 연구대상은 인간〉이며 인문학이 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인간연구이다. 경제적으로 힘든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기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함께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하고 곤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미〉의 설정이다. 인문학적 노력은 한가한 교양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절실한 존명(存命)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와 문화의 문제점의 하나는 협소한 영역의 자기 중심적 전문가만 있고 참으로 통합적인 시야를 가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식인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다. 즉, 〈유식한 무식꾼〉의 범람이 문제인 것이다. 문학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국면이 있으며 이것은 모든 인문학에 공통된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인문학도 인문적 소비자를 창출하고 유도할 방법을 현대의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신앙적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학은 인간의 영원한 과제요 대안 없는 가치의 탐구이다. 즉,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만큼 실용적인 학문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인문학의 중요한 종교교과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대학 중 종립 대학에서는 대부분 교책 교양필수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학점제 혹은 PF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경우 종립 대학은 72개교로 4년제 대학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중 14.7%에 해당한다. 사립대학중에서 43.1%가 종립 대학이다. 이들 종립 대학들이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종교는 그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문화적 제도이다. 하나의 제도로서의 종교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들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당위적 가치를 창조해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

에서는 이러한 당위적 가치들이 과학적, 합리적 기술적 정보지식에 매몰되어가고 있다.

합리적 정보와 기술적 문화의 범람 속에서 자칫 매몰되기 쉬운 규범적 문화 그리고 그 규범적 문화조차도 선진국 문화적 가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종교는 각 국가의 주체성 있는 규범적 문화를 어떻게 창달해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종교가 각 사회의 폐쇄적 가치를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주의(localism)적 가치를 심도있게 소화한 상태의 세계주의(cosmopolitanism)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가지의 맹목적인 추종은 그 사회를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한국적 가치만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선진국 주도의 문화 제국주의적 부호들을 분리해 내어 보편적인 가치들을 창조해 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종교의 윤리 규범들은 대인적, 대물적 행위들을 넘어서서 정보창조, 유통, 소비에 관련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조직은 인간성 상실을 매워 줄 수 있는 만남의 공간과 만남의 시간들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신앙공동체를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국제적 분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의 적극적인 문화 창조 활동을 해야 하며 국수주의와 사대주의로부터 세계-지방적(cosmo-local)문화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규범적 문화와 관련하여 과거의 규범들이 갖는 가시적이고, 직시적인 대인·대물관련 규범들뿐만 아니라 정보들과 관련된 규범 내지 윤리관 제시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는 원자화되고 이차적 관계가 지배하는 정보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의 역할을 모색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 문명을 직시 할 수 있는 균형감각 있는 안목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인문학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교양교육과정의 목적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교양교육과정의 구조안에서 종교교육(대순사상의 이해)의 위치와 의미를 밝히고자한다.

II. 대학교양교육과정의 목적과 변천과정

우리 나라 에서는 1949년 12월에 미국제도로 채택한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대학의 교양교육 강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그 실행이 부진하여 1953년 4월 교육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양과정의 이수를 구체화 시켰다. 그러나 전공과정의 전공과정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목적은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양과정의 목적이나 교과목은 아직까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¹⁾

Woodring은 “교양교육은 그 배경에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용어이다. 그것은 무지나 편견이나 편협성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교육이다”라고 하였으며, “세계적, 전체적으로 달관하는 눈을 만들어 주고 자기자신을 전망하는 능력을 마련해 주며 자유화하는 교육을 뜻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 분야의 관계를 파악하는 처지에서 교육의 폭을 넓히는 교육이 교양교육이다²⁾”라고 표현했다. 이런 의미에서 교양교육이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창조자이며, 또한 그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³⁾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은 인간을 정형화시키고 인간의 무한한 힘을 파괴시키며 소외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는 곧 고도로 훈련된 특수전문가의 역할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의 참가에 의한 사회적 결정 범위는 좁아지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 즉 과학 기술의 전문가를 구하고 있고 산업사회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의 역할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직업 시장의 격심한 변동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 남으려면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원리에 대해 광범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숙련된 기술보다 폭넓은 가변적인 기초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사태에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적절하고 신속한 판단력과 적응능력의 소유자를 육성해야 한다⁴⁾는 점에 있어서는 전공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원래 교양교육은 고대의 인문교육 또는 자유학문적 교육(liberal education)에 기인된 것으로 전통적인 소수 엘리트 위주 교육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선택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 정식영, 유봉호, 유태영, 「대학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양과목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12, 1968, 119-135쪽.

2 이철주, 「대학의 교양과정 구성상의 문제와 전망」, (문교부, 연세대학교) 1972, 18쪽.

3 함종규, 「대학교양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숙명여대 《논문집》 19, 1979, 387-421쪽.

4 위의 책, 390쪽.

자유학문적 교육은 사회의 지배계층이 갖는 특성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노예나 하류계층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서 시작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대학교육은 소수 특권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대중(mass)에게 개방되었다.

Newman은 그의 유명한 논문 「The Idea of a University」에서 “대학은 보편적 지식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대학의 목적은 도구적 감화를 주거나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치는데 있지 않고, 지적교양을 전수하는데 있다. 그런 만큼 대학은 학생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추리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의 지적능력을 교육해야 한다”⁵⁾고 강조하였다. 즉 보편적 지식에 대한 전수의 결과로 도달되는 상태를 정신의 확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창조적 구성능력으로서의 상상력 발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많은 지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전체의 일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한편 Hamilton은 “교양교육은 개인이 어떤 외부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자신을 위한 목적 자체로서 부여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직업인으로서의 상대적인 재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절대적인 완성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교육이다”⁶⁾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교양교육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개발할 뿐아니라 인접학문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상호 유기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전공과목의 기초를 확립하며 동시에 총체적인 안목을 갖는 기초교육, 교양교육을 뜻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변천으로 교양교육의 본질은 원래의 교양교육에서 그 의미가 많이 확대되었다.

교양교육은 전문화에 대신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의 과학 기술시대에 있어서는 인간성을 좀먹고 있는 제반 위협적인 사회요인이 결과하는 편협성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기자신을 전망하는 능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Woodring의 말을 재음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요는 전문화된 편협한 교육을 피하고 지식과 인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식있는 시민을 육성기 위한 교육 본연의 자세를 높이는 교육으로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비

5 J.H.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York:Doubleday, 1959, p.145; 성현경, 「대학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실패한 실험대학의 교육실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60-64쪽 재인용.

6 위의 책, 61쪽.

판적 지성을 강조하고, 인간적 욕구의 모든 측면에 대응하려는 교육의 교양교육의 본질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에는 사회의 이념이나 다양한 가치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⁷⁾ 지성과 인격을 갖춘 교양인을 기르기 위한 교양 교육과정이 무엇으로 어떻게 계획,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교양교육과정의 목적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대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가치를 창조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이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심성적·학문적 바탕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교양교육은 인간과 자연, 역사와 현실,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관계에 관한 지적, 도덕적, 심미적 이해와 적응을 하게 하고, 자신의 균형적 성장을 방해하는 폐쇄적, 정체적, 배타적 신념이나 맹신적 관습 혹은 고착적 행동의 구속으로서 자신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바탕을 형성시켜 준다. 이것은 교육받은 전인적 발달의 조건이며 또한 고도의 학문이나 전문적 직업의 생애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성격상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첫째, 인성적 차원에 관한 것으로서 전인적인 균형적 성장을 위한 교양의 형성하는 본질적 기능이고, 둘째, 학문적 차원에 관한 것으로서 각종의 전문적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서 도구적 성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자는 인격적 자유를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바탕이라면 후자는 학문적 자유를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바탕이다.

1) 본질적 목적

교양교육은 지적, 정의적, 신체적 제 측면의 균형적 발달을 통하여 인격의 발달을 통하고 사회적 적응력과 지도력을 기르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균형적 발달과 통합된 인격은 자연세계의 질서와 인간세계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그 기초로 하며 심신의 건강과 안전을 그 조건으로 한다. 자

7 이상주, 「대학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교양교육과 창조적 지성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과 그 발전방향』, 1986, 31-124쪽.

연세계의 질서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양교육은 생명체의 본질, 자연환경과 생태, 지구와 우주의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질서, 물질 세계의 구성과 변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세계의 상호관계, 자연에 대한 미래의 공학적-기술적 도전 등을 포함하는 자연세계의 질서와 그 본질에 관한 지식의 획득과 이해의 성숙을 기한다. 자연세계는 생존하는 인간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므로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전망은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인간사회의 특성과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양교육은 인간사회의 특성과 질서와 문제를 역사적, 지역적 특성으로 접근하고 사상적인 측면으로 철학사상, 종교사상, 사회사상, 교육사상, 예술사상등을 탐구하며 종교(불교, 기독교, 유교, 기타세계 종교), 제도(정치, 경제, 교육, 종교, 군사 등), 문화(학문, 문학, 예술, 관습, 민속 등), 의 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역사성을 지닌 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삶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문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좁고 넓은 세계의 문제들을 체계적인 지식과 세련된 안목을 가지고 대하고 극복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육받은 사람들의 조건이다. 또한, 인격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교양교육은 학생 각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천부적 소질과 재능을 개발 할 수 있게 하며, 인격의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되는 가치관 탐색의 방향을 계도하고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기하며, 고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취미를 개발하는 일을 도운다.

2) 학문적 목적

교양교육은 고도의 전문화된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탐구의 기초 혹은 도구나 심성적 바탕을 형성한다. 학문의 기초나 심성적 바탕은 보통교육의 과정인 중등 학교에서 해오던 교육의 주된 내용이지만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그 자체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균형 있는 학문적 기초와 지성적 능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학문적 기초와 도구를 형성하게 하고 지식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문 체계적 기초의 형성과 학문 방법론적 기초적 형성, 학문도구적 기초의 형성, 능력도야적 기초적 형성을 위

한 교과들이 요청된다.

첫째, 학문 체계적 기초의 형성은 각 분야의 직접적인 인문적 내용과 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인접학문의 내용을 균형 있게 익힐 필요가 있다. 인문과학의 경우 철학, 역사학 등이 필요하며, 사회과학의 경우,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 필요하며, 자연과학의 경우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등이 전공의 여하에 관계없이 학문의 기초로서 학습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둘째, 학문방법론적 기초의 형성은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활용의 범위와 한계를 인식하며, 그 응용과 변용 그리고 이를 기초한 새로운 원리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학과 전산학, 사회과학 방법론, 과학철학 등의 방법론적 기초가 요청된다.

셋째, 학문도구적 기초의 형성은 학문 탐구의 도구로서 국어, 외국어, 작문, 수학, 논리학등의 대표적인 도구교과를 들 수 있다.

넷째, 능력도야별 기초의 형성은 어떤 학문이나, 전문 직업적 분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관, 사고력, 창의력, 의지력, 정열, 진념 등의 심리적 바탕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도야적 기초는 그 자체를 위한 개별적인 교과목의 수업을 통하여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교과목들의 진행과정 속에 포함되어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전문교육을 논리적으로 상정하고, 전문교육이 경직적이나 편협성에 빠져 전인적 대체로서의 인격적 학문적 성장을 제압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인격적 학문적 바탕을 형성하고, 전문적 능력이 균형 있게 갖추어진 전인적 성장으로 통합

하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전인적 통합의 과정은 전공교육과정에서 보다는 교육과정의 체제를 개발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Harvard 대학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교양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통론 위주의 교양교육의 인식을 탈피하고 20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교육받은 사람의 상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 ① 명료하게 사고하며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②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③ 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④ 도덕과 윤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대에 관하여 무지한 나머지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좁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대학교육 전체를 통해서 실천되어야하며 ③, ④, ⑤는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2. 교양교육과정의 발달

우리 나라 대학의 교육과정 발달사는 1945년부터 53년까지의 180학점 체제의 시기와 1954년부터 72년까지의 160학점 시기, 그리고 1973년 이후의 140학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0학점 체제의 시기는 우리 나름대로 국가적 교육계획작업을 할 만한 역량있는 학자가 부족하였다. 미군정하의 한국 대학의 출발은 국민들의 요구나 의사, 견해, 판단등을 수렴한 사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한국의 대학교육제도는 외국유학의 경험이 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처음부터 결정⁹⁾되었는데 군정당시에는 2명의 미군장교 Croft 소령, Gordon 소령과 백남훈, 유진오, 김성수, 박종홍등의 역할이 컸으며 또한 미군정 초기 미군정당국은 한국 교육담당 Lockard대위의 영향력아래 한국 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f Education)를 발기하였다. 이들은 한국 대학교육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해야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전문가, 정치지도자의 안목과 식견을 모두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정보를 소수인에게만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국고등교육 정책의 출현은 교육자, 선각자, 전문가, 사회 정치적지도자들의 구국이념을 표방하는 양식으로 출현되었을 것이다.¹⁰⁾ 또한 구국적 상징으로서 대학교육 및 교육기관 설립은 지식인들의 합리적 사고방식속에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해방당시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한국대학의 사명을 ① 학문하는 사람 ② 지식을 응용 연구하는 사람 ③ 지도적 인격 소유자의 양성에 두었다. 한마디로 Elite양성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선각자의 이념과 규범 속에 있게 하고 현대적 지식과

8 김광익, 『외국대학의 교양교육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의 책, 125-138쪽.

9 한준상, 『한국대학교육의 희생: 대학교육 한계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서울:문음사, 1983), 266-267쪽.

10 위의 책, 269쪽.

기술에 유능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렇듯 한국대학교육은 처음부터 이해집단의 작용을 크게 받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그동안 전문교육을 강조한 일정시대의 교육과정에 미국식 - 일반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1950년 6.25동란으로 대학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51년 5월 4일 「대학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 조치령」에 의하여 임시 긴급 조치로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교수의 부족,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일반교육과목을 합동수업으로 이수하게 하고 선택할 교과는 그 폭이 좁아 획일적으로 이수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¹¹⁾ 이러한 비정상적 운영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교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학의 경영난 때문에 선택교과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¹²⁾

교육과정구성 역시 전문가,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었다. 미군정 초기 군정장관의 한국인 고문으로 11명이 선임되었으며 김용운, 김동권, 원기억 등은 사업가였다. 은행가,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미국 유학생이었다. 외국 유학 경험이 있고 영어이해에 능력이 있는 통역정치인 문교관계 주역들은 미군정 문교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의 세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 강행하였다.

첫째,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를 학교교육의 핵으로 삼았다. 대학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인민들로 하여금 현실과 정치적 실천에 관계된 사실의 중요성을 납득하도록 협력하여 정치적 문제를 개발할 수 있고 또 개발시켜야 하는일”¹³⁾ 이라고 처방했던 것이다.

둘째, 외국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소개작업을 추진했다. 예를들면 초기문교관계 전문가들이 처방한 학제, 교육과정,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분리, 대학원제도등 모두 미국의 것을 차용하였다. 외국어에 대한 특별 배려도 강조하였다. 서울대 문리대의 교육과정을 검토할 당시(1947년) 국어와 외국어가 똑같이 8학점으로 조정되고 학생들이 영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만 되었다.

셋째는 외국 유학에 대해 적극적인 권장을 강화했다. R.Werth는 “미국이 미래의 한국교육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가능한 많은 남녀 한국 학생을 미국 대학에 받아들이는 일이다. 미국 대학교육을 받은 후 귀국, 혁신적으로 한국 교육을 위해 쓸 수 있는 기초를 배우게 하는 일”¹⁴⁾이 미국의 정책이었다. 즉 미국의 문화적 이해관

11 강무섭, 앞의 책, 7쪽.

12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풍문사, 1960), 93쪽.

13 한준상, 앞의 책, 282쪽.

14 R.Werth, *Educ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School

계를 이식시키기 위해 주변 약소국의 지도자 권력자들을 유학시켜 배워가도록 하였다.

미국의 교육, 경제, 정치, 법률등의 한국 이식은 매우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학 뿐 아니라 문교관계관리, 전문가들의 해외시찰도 분주하게 진행되었다.

1946년 4월 조선교육문화사절단도 미국으로 견학을 떠나 4개월동안 미국교육을 시찰하고 돌아와 이양법, 과일병충에 예방법 등을 발표하였으며 고헥경은 ‘걸 스카웃’등을 소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사회화에 대한 것들이 외국것에 대한 수용과 인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미군정측은 처음부터 교육심의회구성을 반대하였으며 교육심의회는 우리 민족문화 전수, 사회적 실천 등이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하려고 제창하곤 했었다.¹⁵⁾는 것이다. 새로 부임한 백낙준 문교장관은 신문고정책으로 지식교육, 기술교육, 도덕교육, 국방교육을 내걸고, “새건설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조차 새로이 해야한다. 사고방식부터 새로이 해야한다. 여기서 새건설 즉, 새형태의 건설이 있는 것이다. 재래의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사회를 건설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교육에 있는 것이다”¹⁶⁾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1930년대 미국의 실용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50년대까지 강조되어왔던 새교육(new deucation)은 계급주의, 차별주의를 배격하고 교육의 도구화를 배격하였다. 이는 자유에 기반을 두고 억압적 교육을 거부하며, 획일주의를 반대하고 개인차를 존중하는 개성증진을 위한 교육운동이었다. 또한 지식위주의 암기교육을 지양하며 삶과 생활교육권장을 위한 실천적 아동교육 운동이었다. 이때 교육현장에 등장한 교육방법으로 Dalton plan, Winnetka System, Project method 등이 새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소개되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합한 내용이 아니었다.

and Society, 1949, 60, pp.305-309를 한준상, 위의 책, 282쪽에서 재인용.

15 백낙준,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동아출판사, 1963), 72-79쪽; 한계상, 위의 책, 284쪽 재인용.

16 위의 책, 286쪽 재인용.

17 ·New Education movemant : 1970년 Massachusetts Quincy city에서 실천된 교육운동.

·Project method : Coulumbia eogkrrytn Kilpatrick이 1918년경 주창했던 아동중심교육의 한 방법으로 학습자 주도권을 강조한 교수법.

·Winnetka System : 1972년 Illinois 주 교육감이었던 C.Washburn에 의해 주도되었던 계획교수법이면 Winnetka Curriculum은 일정한 교재를 숙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자기학습(Self-instruction), 자기평가(Self-correction)가 개인, 교사에 의해 각기 진행된다.

160학점제 (1954년 - 1972년)시기는 고등교육기관이 폭증하였다. 해방 전까지 19개 정도의 고등교육기관이 1954년경에는 6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팽창된 원인은 미군정때 채택된 서구식 자유방임적 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개혁의지 및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들이 치부를 하기 위한 목적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1961년 혁명정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교)의 정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¹⁸⁾ 그리고 4년제 대학 71개교 중 36%인 21개교가 정비되고 679개의 학과를 532개 학과로 축소시키고 1966년에는 대학 정원 령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을 쇄신하고 교육내용과 학습지도의 방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개선하고자 180학점에서 160학점으로 감축 조정하였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교양교육의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세계적으로 국가발전에 대학교육의 기여도가 크게 인식되었으므로 종래 대학의 이념인 교수와 연구이외에 사회봉사라는 이념이 추가되었다. ‘사회봉사’라는 이념이 강조된 이후 대학교육과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양필수에서 제 2 외국어를 선택과정으로 통제하고 사범 대학에서는 각 계열별 선택과목을 교직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외국어를 주당 12학점, 국어는 4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이 현상을 Bourdieu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표면적으로는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도교육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특권과 통제가 은밀히 재생산되고 있었으며 잠재적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등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겠다. 즉, 일부 교양과목에도 동양윤리, 동양철학 등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철학개론 역시 서양철학 소개에 치우쳐 있었다.

1968년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과 국가발전」 세미나와 1966-67년 사이에 중등교육연구소에서 연구한 대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¹⁹⁾는 1970년대의 대학교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연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대학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특히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4년제 대학교육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특수 전문교육이나 전공의 세분화는 대학원 교육으로 넘길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에서는 교과과정 개편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학교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밖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18 위의 책, 21쪽.

19 이영덕 외, 앞의 책, 23쪽.

활발히 진행되었다.²⁰⁾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 연구의 특수한 현상은 대부분이 연구의 시기도 비슷하고 연구내용과 방향도 유사하며 미래의 대학 변모를 예언이나 하듯 그 구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모든 대학이 같은 모형의 교육과정을 갖게되고 함께 시행착오를 하는 현상이 자주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각 program이 대학이나 주에 따라 다양하게 실험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연구는 창의적 자발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연구의 속성이 뚜렷이 들어 나고 있어 마치 문화주의 식민적 현상과 유사하다.

교육에 대한 문화 식민주의적 현상 중 주변국 지도자들은 교화의 전담기관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교육기관 제도 등 하부기관을 등장시켜 기존의 행동 양식과 체제를 부정하는 태도를 일차적으로 인식하게 한 뒤 새로운 제도와 교육내용을 출현시키고 있다. 즉 60년대 후반에 대학교육의 한계를 찾고 국가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부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었다하겠다. 또한 1971년 서울대학교 자체 개혁안을 필두로 문교부에서는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지역세미나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각종 정책 연구를 진행시켜 실험대학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를 채택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개혁의 각종 세미나²¹⁾의 내용을 종합하고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거쳐 대학교육개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대학교육개혁은 외적으로는 사회 속의 대학으로 개혁하고, 내적으로는 각종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탄력성있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라고 제시하였으며 ① 졸업학점의 감축조정 ② 학부별 또는 계열별 정원제의 실시 ③ 부전공제의 활용 ④ 졸업년한의 융통성 인정 ⑤ 복수전공제의 실시 ⑥ 계열학기제의 운영 및 등록금제도의 개선을 하도록 개혁이 가능한 대학부터 실험대학으로 선정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유인종은 “사회와 유리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으며 폐쇄적인 교육과정운영은 학과간에 두터운 장벽을 만들었고 학문영역간에도 연계성, 관련성이 없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였고 법정과목을 제

20 강무섭, 앞의 책, 27쪽.

21 문교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지역세미나 (1974. 5. 21); 유인종, 「대학 교과과정 편성상의 문제와 전망」, 『고등교육의 개혁』, (서울 : 연세대학교, 1973), 266-7쪽.

외하고는 순수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²²⁾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폐쇄적인 전공학과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광역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과다한 필수과목대신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피하며 교양교육을 분산 이수하도록 하고 대학마다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인종은 법정과목을 순수교양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교수 및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했다.

(1) 대학교육과정의 구조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구조는 첫째, 교육의 목표 둘째, 교육과정의 존재 양식 셋째, 교육과정의 의도형식의 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의 의도형식을 간단히 논의하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성취시키고자 하는 교육의도의 형식에 따른 구분이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교육의 의도성이 계획적으로 구조화되어 외적으로 들어 난 것임에 비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의도가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결과되어지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과 대부분 혼합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존재 양식으로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통된 경험이며 학위취득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제시되어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공식성을 합법화한다. 이에 비하여 비공식적 교육과정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요건이 아니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맡겨진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학교육과정 구조의 실체

22 유인종, 「대학 교육과정 개선의 요인과 기본방향」, 『대학교육과정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 7-11쪽.

교육목표 존재형식	전 공 과 정	교 양 과 정	자유선택과정
공 식 적 (학점부여)	정 규 전공교과과정	정 규 교양교과과정	정 규 일반선택과정
비 공 식 적 (학점비부여)	전 공 관 련 각종 비공식적 과정	교 양 관 련 각종 비공식적 과정	기타 일반적인 각 종 비공식적 과정

교육과정을 교육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총체적 학습경험이라고 할 때 이러한 비공식적 교육과정도 매우 중요하나 대체로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할 때는 공식적 교육과정 부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국 대학의 교육과정 구조는 이론적으로 <표 1>과 같으나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서도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전공과정과 교양과정과의 위상관계는 학점 배분비에 있어 전공과정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해방직후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정의 학점 배분표이다.

<표 2> 우리 나라 대학교육과정의 학점배분

연도	1945 1953	1954 1972	1973 현재
학점수			
전체졸업 이수학점수	180(100.0)	160(100.0)	140(100.0)
전공과정 학점수	80(44.4)	82(51.3)	69(49.3)
교양과정 학점수	40(*22.2)	49(30.6)	46(32.9)
자유선택과정 학점수	60(33.3)	29(18.1)	25(17.9)

우리 나라의 경우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대한 상대적 열세는 계속되어 왔으나, 대학에서 전문기술인 만을 양성하고 자유 학문적으로 교육받은 인간(Liberally educated person)의 특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가

치판단과 인식, 특히 교양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인식의 발견으로 교양교육의 근본 문제를 어떤 교과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교육을 검토하고 교양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자 한다.

III. 종교교육의 목적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특정종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신앙심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특수한 종교적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종교교육이 있는가 하면,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신앙 체제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情操(정조)교육이 있다. 즉, 특정종교의 종파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의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으로 교역자 양성교육 또는 성직자 교육과 평신도 교육 그리고 대외교육으로서의 선교교육이 있다. 또한 특정한 종교의 교리 내용이 아니라 원숙한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지향성으로서의 종교성을 (relisosity)교육내용으로 하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in narrow meaning)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종교 전통을 포함하여 종교일반의 본질과 종교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종교 지식교육을 포함하는 종교문화 교육으로서의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있다.²³⁾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종교교육이든 간에 종교교육의 제 일의적인 의미는 전인적 인격교육의 기능에 있다.

탈냉전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무엘 헌팅턴(S. Huntington)은 이미 문화권과의 상호 충돌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문명을 전제로 한 그때의 문화는 종교의 내용을 떠나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Huntington, 1996) 종교가 생활로 나타나는 양상에서 종교에 관한 제 교육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숙한 종교적 인격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당위를 보이는 것이다.²⁴⁾

Maslow에 의해서 제안된 잘 적응된 사람들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는 관계없이 그들 자신이 성장 및 충족을 위해

23 1999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선영 교수에 의해 논급되었음.

24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8, 1999. 173-195쪽.

최선이라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아실현인, 혹은 잘 적응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Maslow의 자아실현인의 특성과 위의 전인적 인격교육 즉, 종교교육의 특징에서 공통점을 교양교육의 목적에 관련짓고 종교교육을 통한 교양교육의 목적달성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대순철학이 교양교육과정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며 21c에 대비한 대학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교육과정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Maslow²⁵⁾의 의하면, 자아실현인이란

- 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각과 그것에 대해 보다 수월하고 안정된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그들은 자아, 자연 및 타인을 잘 받아들인다. 즉, 그들은 죄악감, 수치심 또는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다.
- ③ 그들의 행동은 비교적 자발적이며 자연스럽고 솔직하며 꾸밈이 없고 노력으로 인한 기장 같은 것은 없다.
- ④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문제 중심적이다.
- ⑤ 그들은 개인생활을 위한 욕구를 가진다. 즉, 그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불편없이 즐길수 있다.
- ⑥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가운데 그 잠재적 지원에 호소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에 의지하는 정도로 자아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된 만족을 외계에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인 행동의 요인으로서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에게 맡기고 있다.
- ⑦ 신비, 쾌락 및 황홀감에 쌓인 인생의 훌륭한 것에 대하여 항상 감상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감상력의 신선감을 계속 유지한다.
- ⑧ 그들은 절정경험을 가진다.
- ⑨ 그들은 Adler가 말하는 공동사회적 의식 (Gemeinschaft-gefühl)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 의식 또는 형제애,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애정을 갖는다.
- ⑩ 그들의 대인관계는 심오하고 매우 순수하며, 정열, 애정 그리고 동일시를 수반한다.
- ⑪ 그들의 민주주의 태도는 계층, 인종, 교육 및 정치 등에 침투되어 있다.
- ⑫ 그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주의를 가진 자들이다.
- ⑬ 그들의 유머 감각은 누구에게나 적의적이거나 타인의 열등을 비웃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권위에 무조건 반발적인 것도 아니다. 즉, 야비한 농담 같은 것이 안닌 철학적인 것이다.

25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 Y. : Harper & Row, 1970.

- ⑭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발명력이 그들의 특성이다.
- ⑮ 그들의 어떤 특정한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문화의 동화(enculturation)를 거절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는 적응을 잘 못한다.
그들이 평가하는 가치는 사회적 또는 신체적 실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과 성격을 그들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원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통합된다. 즉, 인지와 의욕(활동), 이성과 본능, 두뇌와 심장 이러한 것들이 Synergy(협력적인 힘)이란 어휘로 표현되듯이 조화를 이룬다.

교육은 이러한 자아실현인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활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가치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다. 이러한 인격교육의 목적달성은 인문학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며 특히 종교교육을 통한 인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Allport는 인격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자신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헌신해야 할 자아의 확대, 그리고 자기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 통찰력의 자기 객관화 기능, 또한 무언인가 포괄적인 인생관의 의하여 인생에 통일을 가져다 주는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즉, 통일적 인생철학을 들었다.

James는 인간이 종교를 자기의 인격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 때 영적인 감격에 의하여 저절로 움직여지고 그러할 때 그 인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의 육체적 자기와는 다른 성자성(saintliness)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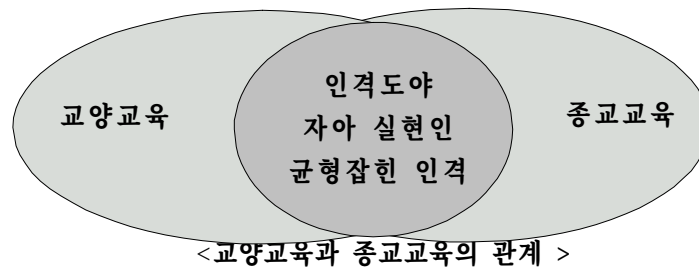
- ① 이 세상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생활보다 아주 광대한 생활 가운데 있다고 느낀다.
- ② 이상적인 힘과 자신의 생명과의 사이에 친애의 연속성이 있다는 의식이 있다.
- ③ 폐쇄적인 이기심의 외곽이 무너지면서 의기가 높고 무한하며 자유롭게 된다.
- ④ 감정의 중심이 조화 있는 애정으로 이행한다.

이와 같은 기본상태에 수반하여 금욕적 절제, 강한심정, 청정한 마음, 자애와 같은 독

26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Ontario: mentor book, 1958, pp.256- 29(1, 윤재근 전거서. p.179. 재인용).

특한 실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Allport나 James가 종교적 인격의 성숙에 관하여 제시한 견해와 Maslow의 자아실현인의 특징도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전인적 인격교육의 측면을 필요로 하며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격교육, 가치교육,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종교교육은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은 다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소외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종교가 인격교육의 적극적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특정종교의 교리 내용을 교화시키는 폐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인적 인격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특정의 종교적 교화를 가능한 배제 하는 종교교육의 특성을 지닌다면 우리 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질서의 조화를 유지하게 하는 전인적 자아실현인을 양성하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과로서 그 몫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양인으로서 개인의 내면적 신념과 현대사회의 적응을 꾀하는 원숙한 현대 지성인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는 종교교육의 중요한 효과와 교집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1. 대진대학교에서의 교양교육과정의 틀

필수 : 대순사상의 이해

제1영역 : 국어, 외국어, 언어

제2영역 : 보건, 체육

제3영역 : 문학, 예술, 미학

제4영역 : 역사, 철학, 윤리, 종교

제5영역 : 사회 문화, 경제경영, 법행정, 가정과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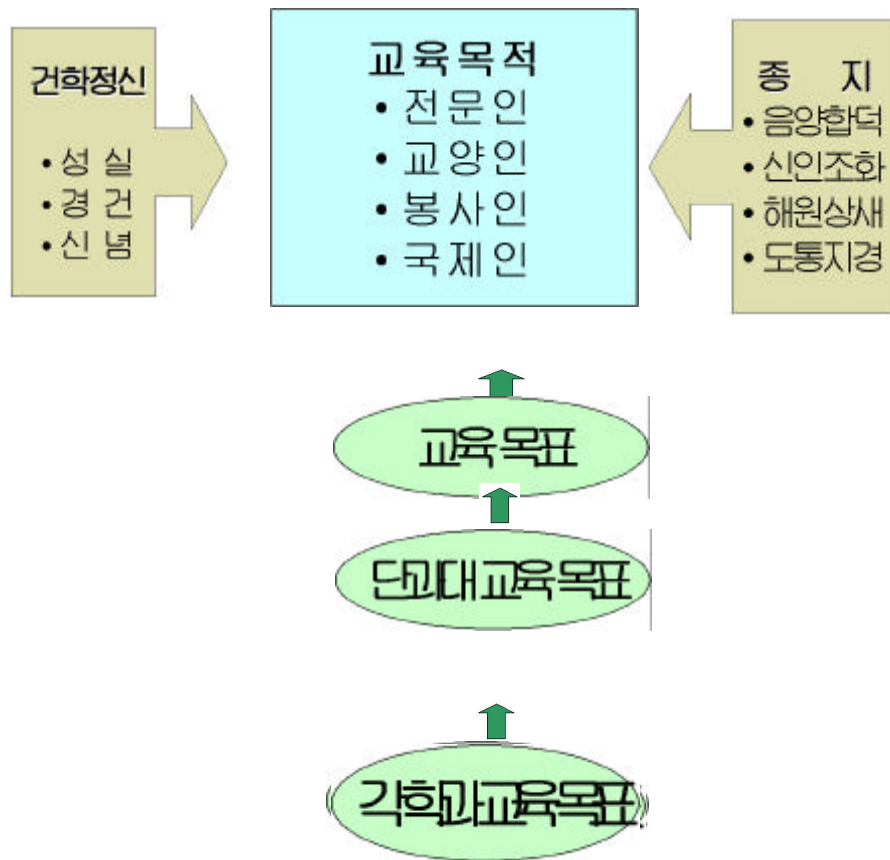
제6영역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신소재, 산업, 전기, 도시,

제7영역 : 심리, 교육,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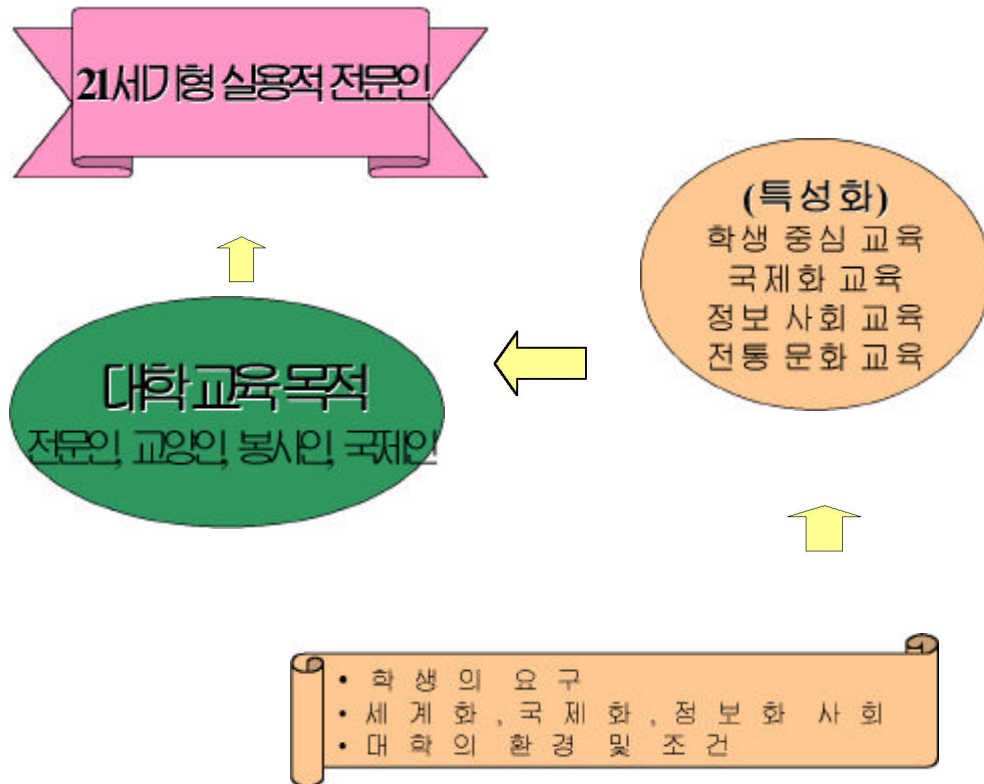
제8영역 : 사회 봉사

제9영역 : 각 학과 전공 탐색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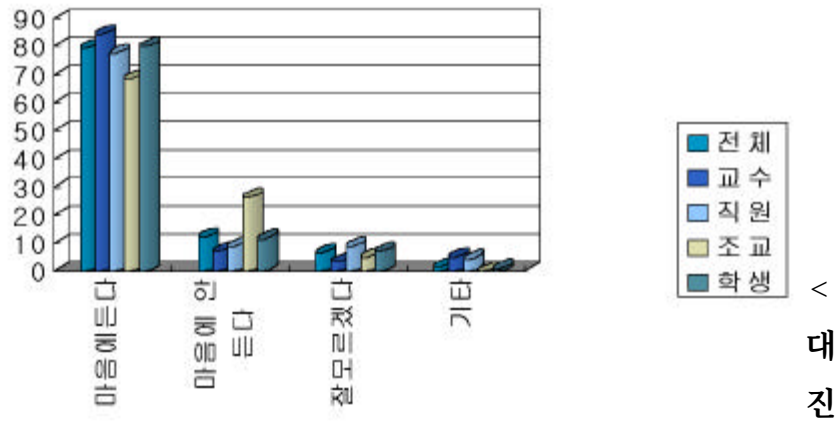
이공대학 기초교양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대진대학교의 건학정신 · 교육목적 · 종지>



<대진대학교 특성화 방향 구조도>



대학교 특성화 호응도>

< 대
진

p 2000 - 1학기 종교 교양과목 현황

교양필수 (2학점)

대순사상의 이해

교선(2학점)

인간과 종교 (139 명)

한국 문화와 종교 (59 명)

신비주의 (173 명)

한국 민족 운동사 (195명)

한국 문화의 이해 (115명)

실천예절(295명)

p 2000 - 2학기 종교 교양과목 현황

교양필수 (2학점)

대순사상의 이해

교양 선택 (2학점)

한국의 사상과 문화 유산 (115명)

인간과 신화 (195명)

한국종교의 이해 (108명)
환경과 생명 윤리 (158명)
한국민중 생활사 (175명)
한국문화의 이해 (167명)
기와 동양 사상 (234 명)
실천예절(300명)

p 대순사상의 이해 교재

펴 낸 이 :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출 판 : 대진대학교 출판부
발행년도 : 1998년

제1장 종교의 이해

1.종교해석의 제 문제

종교적 삶의 범위와 본성

종교를 이해하는 방법

종교연구의 타당성

2.종교의 어원적 의미

종교

3.종교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

전형에 의한 정의

패턴으로서의 정의

4.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

종교의 행위

종교의 객체

5.종교 안에서의 진리 문제

6.종교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성
배타주의
다원주의
포괄주의
종교평가의 기준

p 제2장 구천상제의 강세와 대순사상의 성립

1. 19세기말 조선조의 시대상황
2. 구천상제의 강세와 천지공사
3. 대순사상의 성립과 신앙의 대상

p 제3장 대순사상의 구성요소

- 1.신관
- 2.인간관
- 3.세계관

p 제4장 대순사상의 교의체계

- 1.종지
- 2.신조
- 3.목적
- 4.전경의 구성

행록편.공사편.교운편.교법편.권지편.제생편.예시편

p 제5장 대순사상의 실천체계

- 1.포덕
- 2.교화
- 3.수도
- 4.의식과 예절
- 5.훈화와 수칙

p 제6장 종단의 전개

1.대순종단사

2.도장과 삼대기본사업

부록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도주 조정산

도전 박우당

이와같이 대진대학교는 대순진리회의 종립학교로서 1992년에 다음의 설립 이념 하에 개교하였다. 그 설립 이념은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중추적 역할과 사명은 심오한 학술연구의 전당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천지의 음양조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왔으며, 음양 조화가 인간에게 나타난 것을 인의(仁義)라고 생각했다. 인의는 천지의 음양이 조화하듯이 인간 서로가 조화하는 것으로, 仁은 인간 내부 조화의 근본이요, 義는 인간의 부조화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仁義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 물질문명의 고도화, 기계문명의 첨단화는 인간들로 하여금 물질의 힘을 과신하게 하여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道의 不左, 倫理不左의 시대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仁義를 근본으로 하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과 물질문명의 재정립에 있다. 인간의 삶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는 것, 이는 仁義의 실천으로써만 가능하므로, 仁義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명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간성의 소멸이라는 극심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정신문화의 상대적 쇠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류사회의 공통적인 고뇌의 극복은 誠·敬·信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誠·敬·信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한 인의의 구현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고도의 물질문명을 좀더 조화롭고 넉넉하게 향유토록 하며 보다 나은 고도의 문명을 창출케 할 것이다.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양성,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난관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믿는다. 또한 이러한 인재의 양성이야말로 더 큰 인의의 실천이며, 이것이 곧 나라와 세계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길이라 굳게 믿어, 인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대진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보교의 건학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분야별 세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에서의 교육은 더욱 전인적 인격교육의 측면을 필요로 하며 誠·敬·信을 바탕으로한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 1995년 대순종학과를 설치하여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교육이념으로 대순진리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을 하고 있다.

즉, 대순진리 종파의 종교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대내 교육으로서의 교역자 양성교육, 성직자 교육과 평신도 교육 그리고, 대외 교육으로서의 선교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순진리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daesoonsinlee)을 통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대순종학과의 교육과정은 종교에 대한 학문적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인의 교양습득과 종교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순종학과 졸업생은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지도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관련 교과개요²⁷⁾

- 001411 대순사상의 이해(大巡思想의 理解) (Understanding of Daesoon Religious thoughts)
대순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대순사상의 창시자인 강증산과 그의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해 본다.

27 2001년 대진대학교 요람 참조.

004414 氣와 동양사상 (氣와 東洋思想) (Chi & Oriental Philosophy)

현대의 기에 대한 이해는 과거와는 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아직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 유로 기의 의미에 대한 오해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중국에서의 기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다.

004416 인간과 신화(人間과 神話) (Human Being and Mythjology)

인간의 무의식적 집합표상인 신화를 통하여 인류보편의 사고논리를 알아 봄으로써 문명과 인간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이해하게 한다.

004418 한국종교의 이해(韓國宗教의 理解) (Understanding of Korean Religion)

한국의 종교를 통일된 안목으로 분석하고, 각 종교 전통의 특성을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적 종교심성에 기초한 바람직한 종교관을 정립 하도록 한다.

004421 인간과 종교 (人間과 宗教) (Human Being and Religion)

역사 안에서 인간이 수용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습득하게 하고 종교 안에서의 보편적 가치 등을 제시·이해하게 한다.

004422 한국민중생활사 (韓國民衆生活史) (Life History of Korean People)

한국 고대사회 이래 근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피지배계층으로서 직접 생산자인민의 존재형태를 생산관계의 변천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토대 위에 이루어진 민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통해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민중의 진정한 역할을 인식 하도록 한다.

004423 한국문화와 종교(韓國文化와 宗教) (Korean civilization and Religion)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여기에 바탕하여 한국에서 발전된 제반 종교의 사상을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종교사상이 지니는 특징이 세계 문화 속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자리잡을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004436 한국의 사상과 문화유산 (韓國의 思想과 文化遺産) (Thoughts and Cultural inheritance of Korea)

한국의 사상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문화적 유산이란 가시적인 것은 바로 비 가시적인 문화의식과 사상에서 출발하여 도출 생산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의 가치관과 학문적 토대는 19세기 말 이후 일본에 의한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모방추종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미래 문화대국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전통 사상과 전통문화를 탐색하도록 한다.

004445 신비주의 (神祕主義) (Mysticism)

동·서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살펴보고, 신비주의 특징인 명상과 직관의 다양한 양태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제시된 세계관을 고찰한다.

004547 한국민속의 이해 (韓國民俗의 理解) (Study on Korean Folklore)

가족과 마을 의식주, 민간신앙, 통과의례, 세시풍습, 민속예술, 구비 문학 등 한국의 민속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다.

004619 생명의 이해 (生命의 理解) (Understanding of Life)

생명체의 특성, 구조, 기능에 관한 사실, 법칙, 개념 등의 학습을 통해 생명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과학의 인문사회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네 학습목표를 둔다. 교과내용으로는 진화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의 생명관의 이해를 위해 생물체의 구조, 생리, 생태, 유전 및 환경과 생물 등의 분야를 다룬다.

004720 실천예절(의식예절)Ⅱ (實踐禮節(儀式禮節)Ⅱ) (Practical Manners(Model Manners)Ⅱ)

우리 나라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형·제도화된 의식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그 역사성과 배경 및 의의와 당위성에 대하여 이론적·학술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예절의 실제와 격식의 중요성을 체득케 한다.

위의 교육과정 중 『대순사상의 이해』 교과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과목 개요 : 대순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대순사상의 창시자인 강증산과 그의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해본다.
- ② 교수-학습목표 : 구천상제님(강증산)의 사상을 이해시켜 대진대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 ③ 수업방식 : 강의법·토론 및 토의 발표 수업
- ④ 수업 기자재 : VTR
- ⑤ 교 재 : 대순사사의 이해(1999) 대진대학교 출판부
- ⑥ 평가 방법 : 출석 10%,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과제 10%, 학습태도 10%.
- ⑦ 학습활동 내용 :

주	수업의 주제 및 학습 내용	주	수업의 주제 및 학습내용
1	종교의 정의 : 종교적 표현해석, 종교의 의미	9	후천개벽사상 : 후천개벽의 리와 목적
2	진리의 문제 : 종교에서의 주체, 객체, 종교적 진리	10	해원상생사상 : 해원의 목적과 상생원리
3	종교다원주의 : 종교적 다원성, 종교 평가기준	11	조화선경사상 : 후천선경의 실상과 진경세계
4	상제님 강세시의 사회적 배경 : 구한말 시대적 배경	12	종지 : 종지의 구성과 내용
5	상제님 강세 : 상제님의 강세와 종교적 의미	13	포덕, 수도, 주문 : 포덕, 수도의 방법과 주문의 내용
6	천하대순사상 : 천하대순의 목적과 의의	14	의례, 계율과 도덕 : 의례소개 및 계율과 도덕의 내용
7	천지공사상 : 천지공사의 구성과 방법	15	종단조직 : 원시종단의 모습과 발전사
8	중간고사	16	기말고사

⑧ 2000년 1학기 수업평가 참조 :

- 대순진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 인간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 자기 반성 및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본인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이해하게 되었다.
- 종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 해원상생사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 후천개벽사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 효의 중요성과 가정의례, 도덕적 행위를 알게 되었다.
- 종교의 기능을 깨닫게 되었다.
- 다른 학부 학생을 알게 되었다.
- 대순진리의 종지를 알게 되었다.
- 동학란의 사회적 배경을 깨닫게 되었다.
- 상부상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발표 수업을 권장했으면 한다.
- 학점제가 아닌 PF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 교양선택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 생각보다 괜찮았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강의 계획서 상에 제시된 교수 학습 목표에 비하여 평가된 학습 효과는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자아개발,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학문성의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학습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오늘의 위기상황은 가치관의 붕괴, 도덕성의 상실, 책임감의 상실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바른 도덕성을 가지며 자신의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삶의 다양한 경험을 지성과 사랑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인류가 보편적 가치로 합의하고

있는 자유·평등·민주주의·인권과 인간존엄·평화·삶의 질 향상·문화적 개방성과 관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교와 함께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며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를 넓혀 줄 수 있는 교양교육이 요청된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종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다. 따라서 타종교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해의 태도를 길러야 하므로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 종교교육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교양필수과목인 「대순사상의 이해」는 대순종학과 교육목적과는 달리 대학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로서 대순진리회에 대한 이해를 주로 하며 한국의 여러 가지 종교전통을 포함하여 종교일반의 본질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종교지식을 포함하는 종교 문화교육으로서의 종교에 관한 교육 (education about religion)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교양필수로 정하고 있는 교재과목으로의 종교교과들은 학생들에게 소외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종교교육을 통한 인격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특정종교의 교리내용을 주입하는 교화를 통한 극단적 인격형성을 초래하는 폐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인적 인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수업방법을 개발한다면 현대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질서의 조화를 유지하게 하는 정신적 태도의 연마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교과목과도 비교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내면적 신념과 현대사회에 있어 질서의 조화를 꾀하는 성숙한 현대 지성인을 육성할 수 있는 일을 종교교육에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교양인이 지닐 수 있는 규범적 가치창조는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바른 도덕성을 가지며 자신의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지성과 사랑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며 인류가 보편적 가치로 합의하고 있는 자유·평등·민주주의·인권과 인간존엄·평화·삶의 질 향상·문화적 개방성과 관용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믿음과 함께 다른 사람

의 믿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며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를 함으로써 자아실현인의 특징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교양교육의 목적과 종교교육교과목적은 전인적 인격교육, 자아실현인의 육성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며 성숙한 종교적 인격성을 육성하는 데에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교과는 그 존재 의의가 크다.

그러나 종교교과는 주로 종립 학교의 교채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종립·사립대학에 온 학생들은 그 교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 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특성이나 교육목표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으로만 대학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대학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념과 역사에 무관심하고 또한 그러한 교양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우는 것에도 다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교양과정·전공과정·자유선택과정의 3원 체제에서 교양교육과정이 전공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대학교 나름대로 독특한 목표와 내용을 정립하여 교양교육 본래의 인격적 도야와 학문적 기초를 갖추도록 해야 겠다.

둘째, 균형 잡힌 인격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균형 있는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최근 인기 위주의 교양교육과정이 양산되어 대학생의 자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교과 운영은 편협한 교화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종교에 관한 종교학적 접근을 통한 인격교육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핵 교육과정 형태의 접근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교수의 자질향상과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일, 「내일의 한국사회와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종교협의회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1985.
- 김순자, 한국대학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저의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 백낙준,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 동아출판사, 1963.
- 이상주, 「대학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편,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과 그 발전방향』, 1986.
- 이성호,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개선방향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 _____, 「대학교육의 갈등」, 서울: 느티나무, 1992.
- 유인종, 「대학 교육과정 개선의 요인과 기본방향」, 서울: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 『대학교육과정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1.
- _____, 「대학 교과과정 편성상의 문제와 전망」, 『고등교육의 개혁』, 서울: 연세대학교, 1973.
- 윤기봉,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8, 1999.
- 이철주, 「교육의 교양과정 구성상의 문제와 전망」, 문교부: 연세대학교, 1972.
- 정식영 외, 「대학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양과목에 대한 비교연구-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2, 1968.
- 지응업, 「계열별 입학생의 최종 과배치상황」, 실험대학 연구보고서,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편, 1974.
- 최이순, 전공학과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2000.
-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풍문사, 1969.
- 한내창(1998), 「정보사회의 몇 가지 문제점과 종교적 대응 방안 모색」,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6, 1998.
- 한승조외, 『국민이론 및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분야』, 한국대학교육심의회편, 서울: 한국대학교육심의회, 1984.
- 한준상, 「한국대학교육의 희생-대학교육 한계의 교육사회학적이해-」, 서울: 문음사,

1983.

함종규, 「대학교양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숙명여대 논문집》 19, 1979.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Ontario : mentor book, 1958.

Newman, J. H.,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York : Double day, 1959.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 Y.: Harper & Row, 1970